

“이런 강의 정말 싫어요”

정 민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슈퍼맨의 비애

학기 말에 강의평가서를 받아 본 한 교수는 그만 충격을 받았다. 설문지의 여러 항목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끝에는 겁도 없이(?) “이런 강의 너무 싫다. 권위적이고 주입식 교육이 지겹다.”는 말까지 써 있었던 것이다. 우리 대학에 강의평가제가 도입된 첫 해의 일이다. 당시 여러 교수들이 강의평가서를 받아 놓고 망연자실 허탈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과목이 흥미가 없고 보면 교수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강의해도 학생들이 모이질 않는다. 그러면 흥미 있는 과목으로 바꾸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학문이 어디 재미만으로 하는 것인가. 딱한 노릇이다. 그러니 학기 말에 강의평가서를 받아들면 힘껏 강의하고도

“이런 강의 너무 싫다.”는 평가나 안 받으면 다행이다. 이제 학생들도 매번 쓰기가 심드렁한지 강의평가서의 표정은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 개중에 한 번씩 툭툭 벨는 말에 공연히 교수의 마음만 상한다.

요즘 대학은 이래저래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마다 개혁 프로그램을 다투어 경쟁하듯 내놓고, 언론은 덩달아 이를 부풀려 당장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난리법석이다. 이제 학생도 고객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이니 그들의 구미에 맞게 상품을 만들어 내놓으라고 한다. 진부한 개념으로는 안 되니, 새로운 수업 모델을 제시하라고 아이디어 공모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교수는 이래저래 전전긍긍이다. 대학 종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몇 년 전에 어디 가서 강연한 것, 신문 잡지에 기고했던 잡문까지 찾아 내어 제출해야 한다. 논문도 해외 학술지에 실리면 두 배의

점수를 주고,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다시 가산 점수를 준다고 한다. 필자는 전공이 국문학이고 보니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 좋은 점수 받을 생각은 포기한 지 오래다. 승진·승급을 위한 요건은 자꾸 강화되고, 강의는 꼭 강의평가가 아니라도 신경쓸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선생이 광대가 될 수도 없고 인기 전술을 구사하자니 체신도 체신이려니와 입맛이 쓰다. ‘슈퍼맨의 비애’가 절로 외쳐진다.

개학한 지 한 달이 지났길래 1학년 신입생 면담을 시작했다. 입학 시험 면접 당시 희망 사항을 물으면 한결같이 방송국 PD요, 신문사 기자요, 광고회사 카피 라이터요, 교사요 하고 대답하던 아이들이었다.

“어때! 대학 생활이 재미 있니?”

“아뇨. 재미 없어요.”

“왜?”

“수업도 그렇고, 그저 그래요. 저녁 때 집에 갈 때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어 괜히 비참한 생각까지 들어요.”

요즘 아이들은 참 솔직하다. 이쯤에서 나는 할 말이 없어진다. 국문과에 들어와 문학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토론할 줄 알았는데, 듣는 과목이라고는 국어와 영어, 국어학개론, 한문, 언어와 인간 등 고리타분한 과목들뿐이다. 청운의 꿈을 품고 선망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시작한 대학 생활이 한 달도 못 되어 이 지경이다.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사정이 나아질 것은 없다. 4년 동안 배우는 교과과정은 전부 개론 아니면 원론이고, 특강 아니면 강독뿐이다. PD가 되는 데, 기사가 되는 데, 카피 라이터가 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은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없다.

힘이 빠지기는 선생도 마찬가지다. 특히 시사 상식이나 토익 책을 앞에 두고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4학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라치면 무력감마저 느낀다. “선생님 오늘 면접이 있는데요.” 하며 말쑥하게 차려 입고 온 학생

앞에서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 그들 앞에서 조선 후기 한문학이 어떻고, 고전 비평이 어떻고, 연암 박지원의 정신이 어떻고는 떠드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올 뿐이다. 전공 언어로 취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서양어 학과의 교수들은 그 공허함이 더욱 더한 모양이다. 연세 지긋한 교수 한 분이 “나 이것 참.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무력감을 토로한다. 대학은 바야흐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강의도 예술이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표정은 해마다 천차만별이다. 같은 강의라도 유난히 힘 빠지게 하는 학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르칠 맛이 나는 학년도 있다. 열심히 목청을 돋워가며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도무지 모를 표정을 짓고 있을 때는 이편에서도 슬그머니 맥이 빠진다. 한 번 두 번 되풀이해 설명도 해보고, 이제는 이해가 가느냐는 체크처를 써보기도 하지만 한 번 맥이 빠진 강의는 좀체로 신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강의를 하고 난 날은 도무지 밥맛이 없다.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려웠을까? 꼭 그렇지도 않다. 지난 해에는 같은 글을 가지고 열띤 토론도 벌이지 않았던가.

대학에서 대부분의 강의는 1년 주기로 반복되기 마련이다. 같은 내용의 강의가 되풀이 되면 학생들은 재빨리 선배를 찾아가서 지난 한 학기 동안의 과제를 통째로 화일 복사한다. 그리고는 그때 그때 이름만 바꿔 출력하여 과제물을 제출한다. 이른바 컴퓨터 시대가 낳은 ‘재활용’의 생활화(?)이다. 다른 학생의 과제물을 화일 복사하여 폰트만 이리저리 바꾸어서 제출하기도 흔히 보는 경우다. 이 꼴을 안 보려고 아예 어떤 동료 교수는 과제물을 반드시

손으로 써내게끔 하는 시대 역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첨단 기술에 대응하자면 교수도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강의 내용을 끊임없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기초가 되는 과목은 그럴 수도 없어서 까닭없는 고민만 든다. 꼭 읽어야 할 글을 읽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도 생긴다.

시험도 마찬가지다. 시험 때만 되면 특정 과목의 지난 몇 년간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문제가 주욱 적힌 이른바 ‘족보’라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 돌아다닌다.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른 채 매년 비슷한 문제를 반복 출제하는 교수들은 해마다 높아지는 학생들의 성적이 의아하기만 할 것이다.

그래도 강의실에만 서면 살맛 나는 것이 선생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삶의 근심에 찌들어 있다가도 교단에만 서면 숨어있던 힘이 나고 나 모르는 신명이 솟는다. 신명이 나면 나도 모르게 톤이 높아진다. 나중엔 아예 고향을 지르는 지경이 되기도 한다. 예전에 어떤 분이 강의도 예술이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예술에는 감흥이 필요하다. 예술가의 진지한 열정과 고귀한 정신이 빚어내는 광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감상자의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강의를 예술이라면 교수는 예술가인 셈이다. 학생들은 감상자이다. 뭐 수업이 꼭 일방적인 관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필자의 전공은 한국 고전문학, 그 중에서도 한문학이다. 교과서를 읽다가도 한자만 나오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학생들을 앞에 두고 한자가 아닌 한문을, 그것도 예술성이 어떻고 미학이 어떻고를 강의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만들거란 여간 피로운 일이 아니다. 강의중에는 그래서 늘 오늘의 삶과 관련지어 어떤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다. 교양한문을 강의하면서는 고사성어 하나가 나오면 그것과 관계된 주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 한참 하다 보면 나도 견잡을 수가 없어 누가 좀 말려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 될 때도 있다. 학생들은 동양 고전이 주는 삶의 정신이나 고인들의 삶의 자세를 고리타분하게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제학과의 어떤 학생은 한 학기 강의가 끝난 뒤 내게, 매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공부만 하다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으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학생들은 정에 굶주려 있고, 사람 사는 채취에 목말라 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토대 위에서 있으므로, 고전에서 현재의 삶과 만나는 통로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심어 주고 싶는데 잘 되지 않을 때는 답답하기 그지 없다. 어떤 학생은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정확히 짚어 내어 과제물을 읽던 나의 기분을 들뜨게 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두어 해 동안 한국한문학강독 시간에는 연암 박지원의 산문을 주로 강독하고 있는데, 과제로 원문을 쓰고 번역과 평설을 늘 써오게 하였다. 연암의 글이 읽을 때는 말할 수 없이 재미 있고 흥미로운데, 막상 읽고 나면 작가가 말하려던 의미는 오리무중이 되기 마련이어서, 그 의미를 나름대로 읽어 평설로 써오라고 하면 처음엔 그렇게 곤혹스러워 할 수가 없다. 나의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의 평설을 읽는 것이다. 그 가운데 잘된 것은 그때 그때 평설 부분만 오려 작품별로 스크랩 해둔다. 이렇게 여러 해 모으고 나니 상당한 분량이 되었다. 간혹 한가할 때마다 그 스크랩을 뒤적이며 강의 당시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 나의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다.

가령 연암이 고생만 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누님의 상여를 떠나 보내며 쓴 글을 읽고 나서 학생들이 써낸, “오허려 절제된 문장에 누이를 잃은 슬픔이 절절히 배어있는 듯하다. 몇 백 년을 뛰어넘어 글로써 지금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가히 대단한 문장가

라 아니할 수 없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다. 내 눈 앞에 글의 내용이 영화처럼 지나가는 것도 같았다. 좋은 영화를 보고 난 후에 한참동안 자리에서 일어설 줄 모르는 것처럼, 글이 끝났는데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별은 슬프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다.” “처음에는 묘지명이라는 제목이 으시시하고 메말라 보이는 인상을 풍겨, 그냥 수업의 일부로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글이라는 선입견을 이 글은 무참히도 박살내 버렸다. 아름다운 글은 정직한 글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身土不二라더니, 역시 우리나라 글이 우리 정서에 잘 맞는 것 같다.”는 등의 감정이 이입된 평설을 읽노라면 공연히 내 마음도 뿌듯해지고, 내가 쓴 것도 아니면서 연암이 자랑스럽다.

점수가 이해가 안 가요

필자는 수업 시간에 지각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예 첫 시간부터 분명히 해둔다. 학기말에 강의평가서를 받아 보면 지각 불인정에 대한 원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별 것이 없다. 5분 늦은 학생이나 한 시간 늦은 학생이나 다 똑같이 지각으로 하자니 공평치가 않고, 또 학생들에게도 얼마간의 긴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독 강의의 경우 평가는 창의성에 가장 주안을 둔다. 사실 원문 해석이야 강의 시간에 다 해본 것이니 큰 차이가 없다. 학생들의 평설을 읽어 보면 대개가 거기서 거기인 비슷한 소리들뿐이다. 간혹 창의적이거나 성실한 글을 만나게 되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교양국어 작문 강의를 해 보아도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학생들이 그동안 주입식 교육에만 너무 길들여져 창의적 사고는 가뭄에 콩나듯 만나기가 어렵다.

또 한문학강독의 경우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산문을 읽고, 이후에는 한시를 읽는데, 한시는 기초적인 설명이 끝난 뒤에는 으레 한 사람마다 한 편의 한시를 주어 이에 대해 감상문을 써오게 해서 발표를 시킨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달려들어 그 발표에 대해 논란을 벌인다. 분석이 서툰 학생들은 종종 발랄한 상상력을 지나치게 발휘하여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나는 내 의견을 바로 말하지 않고 학생들의 질문을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레 분석의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학생들은 나름대로 한시를 분석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지난 해에는 학기말에 성적이 게시된 후 한 학생의 방문을 받았다. 평소 차분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선생님! 학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는 것이었다. 출석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과제물도 충실히 냈으며, 시험도 잘 보았다고 했다. 그 학생의 중간 기말 시험자를 꺼내 다시 검토해 보았지만 점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답안지를 펼쳐 놓고 다른 학생의 답안지와 비교해 가며 설명해 주었다. 보조 교재로 복사해 준 논문에서 분류하고 있는 분류틀의 문제점을 지적하라는 문제를 냈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거의 한 면 가득히 그 분류틀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했지 문제점은 하나도 지적하지 못했다. 또 한시 분석과 함께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현대시 한 수를 제시하고 한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 작품을 분석하라는 문제를 냈는데, 역시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주변만 서성이다 만 답안을 제출하였다. 답안지 검토가 끝나자 그 학생은 그래도 납득이 안 되었던지,

“선생님! 그런 것은 배우지도 않았고, 시를 분석하는 것은 그런 방면에 소질이 있어야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했다. 배운 내용을 앵무새처럼 옮겨 적지만 말고 좀 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현재의 삶과 관련지어 보라고 요구한 내 본래의 뜻이 무색하여 나도 좀 서운한 생각이 들었지만, 좋은 말로 타일러 돌려 보냈다. 그 학생이 내 설명에 석연하게 납득했는지는 모르겠다.

지금 필자의 책상 위에는 대학 종합평가와 관련된 공문이 대여섯 건 쌓여 있다.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온다. 대학에 잡무가 너무 많다. 우리 대학뿐 아니라 학회 활동으로 자주 만나게 되는 내 또래의 젊은 교수들을 보면, 너나 없이 잡무에 눌러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도무지 바빠서 연구비 신청할 시간도 없다는 푸념도 들린다. 공부를 하지 않는 변명이나 공연한 엄살로 들리지 않는다. 이런 조바심도 젊었을 때 이야기지 싶다. 이러다 중년에 접어들어 학문에 대한 열정도 차츰 식어지면 이른바 ‘주테야테’ 교수로 만족하기에 이른다. 얼마 전 한 교수가 농담 삼아 내게 해준 말이다. 무슨 말이냐고 물어 봤더니 낮에는 테니스 치고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는

교수라는 말이란다. 자조가 섞인 푸념이다.

강물은 쉬 없이 흘러간다. 선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지만 학생은 어제의 학생이 아니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교수의 학문이 담보상태로 머물러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한 시대가 흘러가고 세상은 바뀐다. 쉬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의 건강함 흐름을 지켜 보면서 필자는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 푸르름으로 늘 깨어 있기를 바랄 뿐이다. 사고의 탄력과 긴장을 잃지 않고, 열린 가슴으로 내 학생들과 만나고, 또 그들로부터 상큼한 자극을 받는 것은 생각만 해도 마음 설레는 일이다. ■

정 민/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조선후기 고문문 연구』와 애정한시 평설집인 『꽃피자 어데선가 바람 불어와』(김도련 공저) 등이 있고, “한시의 언어미학” 등 한시와 고문 관계 논문 이십여 편을 발표했다.